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해 내년부터 통합지원”

2027예산안 당정협의…“3대 메가·AI 등 집중투자”
성장엔진보조금 신설…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내년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주도 성장’과 관련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며,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국립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2027년도 예산안 협의회’를 이날 국회에서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세우고, 청년, 지방주도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권철승 정책위의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으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 항공,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대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지원 △국민 안전 강화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회의 후 권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이광재 예결위위원장, 박 장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분야의 경우 우선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통합 지원 체계를 만든다.

아울러 제조 노하우를 활동영한 AI 솔루션도 개발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프린터 어금 AI 모델 개발을 위해 CPU 1만장 공급 등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전력·응수 확보를 위해 한국

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하기로 했다.

‘우주 항공,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은 넥스트 10개 분야 전략기술들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2030 달착륙 관련 기술개발(R&D) 등 다양한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모빌리티 분야에선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에너지 대전환 관련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고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은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 청년 자산형성, 우리 아이 자립펀드 신설 등이 담겼다.

인턴 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인턴을 했을 때 학점을 인정해서 졸업 전 경력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청년 자산형성은 우리 아이 자립 펀드를 신설해 만18세까지 1년에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혼인·출산을 하게 될 시 세액공제로 지원했는데 이를 보조금과 지원금으로 전환하게 되고 아이 양육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한다.

‘K자형 양극화 대응 방안’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코로나19 때 영업중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업주들에 대해 추가 채무탕감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지방 성장 방안’으로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영세 기업이 지방으로 갈 시 설비투자 등에 대해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한다. 지방 미래 성장 지원금을 만들어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의료 취약 지역을 집중 지원한다.

‘국민 안전 강화’에는 핵융합 잠수함 개발, 군 초급 간부 보수를 인상 등이 포함됐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800조 원을 넘어선 역대 최고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729조9000억 원)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25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합동 참배를 한 뒤 출범식을 가졌다.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당, 지역 현안 대응 6대 특위 가동

행정통합지원·서남권 국제공항 개발·메가프로젝트 등 구성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공식 출범하고,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6대 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25일 오전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합동 참배를 한 뒤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안도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이 참석했다.

안 위원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단순한 행정 결함을 넘어 진정한 통합을 받

시 이루겠다”며 “행정통합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이끌 강력한 구심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산적한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당 조직을 정책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앙당과 시장, 지방정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전남광주 대도약 위원회’를 신설하고 3대 권역별 정책협의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전남광주 지역 국회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회지원위원

회’도 운영한다.

지역 주요 현안을 담당할 6대 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6대 특위는 △행정통합 과정의 갈등 현안을 조율하고 안착을 지원하는 ‘행정통합지원 특위’ △무안공항 이전과 서남권 개발 문제를 다루는 ‘서남권 국제공항 개발 특위’ △인공지능·반도체·신재생에너지·데이터 산업 기반을 다루는 ‘메가프로젝트 특위’ △석유화학·철강 등 제조업 제도약을 지원하는 ‘동부권 제조벨트 특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세계화를 추진하는 ‘민중화 성지 세계화 특위’ △농축수산산업과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통산업경쟁력

강화 특위’다.

시당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래전략기획위원회’와 전직 시·도지사, 장관급 인사 등이 참여하는 ‘통합도약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시장 운영에는 AI를 접목한다. AI 기반 당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NEXT JK 50 미래 정치 리더십 아카데미’를 출범해 청년과 신진 정치인을 발굴·육성한다.

안도걸 위원장은 “320만 특별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30년 첫 반도체 양산 차질없이 실현”

광주특별시·시장, 용수구축 예타면제 의결 환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의 핵심 기반시설인 용수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총 6조원 규모의 통합재정 지원이 의결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일원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특별시는 이날 “반도체 용수 구축 예타 면제와 통합재정 지원 의결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용수 사업을 시작으로 팹(Fab)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과 부지 등 남은 핵심 기반시설 역시 정부의 후속 조치를 통해 차질 없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기업·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와 핵심 인프라 구축에 총 11조원 규모의 대대적인 사업비 투자를 확

한 정부의 큰 결단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2030년 반도체 첫 양산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행정절차 면제와 신속한 속도전으로 화답해 준 중앙부처 관계자, 이를 뒷받침한 민형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 대도약 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도체 투자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통과시켜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다지겠다”고 전했다.

광주특별시는 이번 예타 면제와 통합재정 지원 의결이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예타 면제 의결로 광주 군공항 부지(약 826만㎡) 일원에 들어설 반도체 팹(Fab) 4기와 협력사에 필수적인 용수(일일 65만ℓ) 구축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특별시, 中 장시성과 청소년 국제교류

장시중의약대 교류단 23명, 순천만정원·전남대 등 탐방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중국 자매결연 지역인 장시성의 장시중의약대학교 교류단 23명을 초청해 오는 31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두 지역 청소년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역량을 키워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특별시와 장시성은 2009년부터 청소년 교류를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총 22회에 걸쳐 1022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교류 성과와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통합 이후에도 두 지역 청소년 교류는 지

속 확대되고 있다.

25일 열린 환영식에는 전남광주특별시와 장시성 청소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통문화 공연과 교류 프로그램, 지역 역사·문화 소개 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친밀감을 높였다.

교류단은 행사 기간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순천만국가정원 등을 방문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한다. 나주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과 전남대학교를 찾아 지역 대학과 교육환경을 살펴보는 대학 탐방도 진행한

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與, 메가성장 특위 설치…김민석 대표 직접 주도

공천혁신·개헌 등 특별기구도
공천혁신추진단장에 신정훈
‘불금정치’ 민생단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가의 미래 성장 전략을 지원할 ‘메가 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메가성장 특위) 등 특별위원회 10곳을 설치한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10대 혁신 특별기구, 이른바 ‘메가텐’ 인선을 발표했다.

메가성장 특위는 기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기구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국 3특’으로 대표되는 지방 주도 성장과 함께 경기북부, 서울의 성장 전략을 책임진다.

위원장인 김 대표에 더해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이 수석부위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이연주 의원이 각각 상임부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간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장철민 의원이며, 윤후덕(경기북부)·안호영(전북)·김영배(서울)·복기왕(충청)·허영(강원)·허종식(인

천)·임미애(대구·경북) 의원과 김두관(부산·울산·경남) 전 의원 등이 권역별 분과를 이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전남광주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위원장이 안도걸 의원과 송형국 특별시장의장이 공동 분과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른바 ‘시스템 공천’의 연장선에서 6·3 지방선거·재보궐선거 공천 당시 문제점 등을 반영, 공천혁신안을 만들 공천혁신추진단장에 신정훈 의원이 임명됐다.

개헌 문제를 다룰 개헌추진단장은 5선의 김태년 의원이, 당 민생접촉 태스크포스

(TF)인 ‘불금정치 골목민생단’ 단장엔 역시 5선의 박지원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마·중·일 정당 외교추진단(단장 박정·부단장 홍기원) 인선을 발표하면서는 미국 중간선거 전 방미(訪美)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른바 ‘정당개혁추진단’의 단장을 겸임하며, 소속의 민주당이 청년문화제 등 당이 주도하는 청년문화 행사를 지원한다. ‘문화하라 한류정치 전국청년문화제추진단’은 배우 이원종 씨가 키를 잡았다.

이성오 기자 solee235@